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6월 10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8개교 3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실'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방 교실은 국립재활원과 연계해 장애인 강사가 일선에서 장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 5계명과 사고에 따른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한다. 또한, 장애인 강사의 실제 사고 경험담과 시청각 자료를 보고 들으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누구나 장애인인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휠체어·지팡이 등을 이용한 장애 체험교실도 운영, 건강한 몸의 소중함과 장애의 인식 개선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보건소 방문보건팀(☎ 620-77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청년 고용정책 온라인 설명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9일 온라인 청년 고용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재학생과 졸업생, 도내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 도내 청년 구직자 400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빌드업, 점프업 프로젝트) △국립취업지원제도 △미래채널 일일협 등 다양한 청년정책과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실시간 소통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관과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신숙경 센터장은 "앞으로 도내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서남노인복지센터서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안순주)는 지난 19일 서남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원소방서에서는 재년에 취약한 노인 등 취약대상 소방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올바른 119신고법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및 실제 사례를 가정한 실습 △소화기 사용법 및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요령 등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왕정동, 1일 1가구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 왕정동(동장 안병오)은 올해도 주민의 안부를 살피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260가구를 방문·상담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 청취 및 해결, 공공서비스 연계, 민관 협력사업 추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촘촘한 주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정동은 금년에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SNS 소통채널 구축 등 1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 시즌 홈 5승 1무 '안방 불패'

전주시민축구단, 승점 22점 K4리그 전반기 3위로 마쳐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승점 22점(6승 4무 2패)으로 K4리그 전반기 3위로 마무리했다. 20일 전주에 따르면 시즌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승수를 쌓기 시작했다. 특히 홈 5연승으로 팀 최다연승을 기록한 전주는 6경기에서 5승 1무로 '안방 불패'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전주는 K3리그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 후반가에도 공격축구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현재 K4리그는 1위에서 5위까지 대 혼전 상태다. 환경기를 덜 치른 대전하나시티즌(23점(7승2무2패))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어 전북현대모터스(22점(7승1무4패)), 전주시민축구단(22점(6승 4무 2패))과 거제시민축구단(22점(6승 4무 2패)), 당진시민축구단(22점(7승 1무 4패))이 골득실과 다득점 순으로 각

각 2위, 공동 3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가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는 리그 2위 안에 들어야 한다. K4리그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고 최종 순위를 가려 상위 두 팀은 K3로 자동 승격된다. K3리그 최종 순위에서 하위 두 팀이 K4로 자동 강등된다. 또 K4리그 3위와 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리가 팀이 K3리그 14위와 승강 결정전을 치러 승격과 잔류 여부를 가린다. 양영철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1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K3리그 승격을 위해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충주중앙운동장에서 FC충주와 '2024 K4리그'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장은성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제41기 진안군 노인대학 특강

전춘성 진안군수는 20일 진안군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부설 진안군 노인대학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인대학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진안'이라는 비전 아래 민선 8기 군정 운영 현황과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군이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노인대학생들과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전춘성 군수는 "인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1기를 맞는 진안군 노인대학은 1988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2,2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관내 어르신들의 배움과 여가생활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과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 1차 오리엔테이션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교육장은 지난 19일 무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복교육을 위해 '2024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 참가 학생 24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김승기교육장은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축하와 말을 전하며, 학생들은 이제 개인 신분이 아니라 무주와 전북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이 자리에서 '2023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 사업이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예산이 1억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덕분에 올해는 '2024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 고도화시키고 더 많은 학생 교육분야 사전교육 I을 8시간(16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우리 문화 알리기 분야 사전교육 II를 4시간(8시간)에 걸쳐 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원어민 교사 3명과 관내 교사 2명을 강사로 초빙했다. 아울러, 해



외 영어체험의 교육적 성과를 확장하기 위해 학생들은 선발 전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써 오던 일기를 위해 사후교육을 마치는 날까지 쓰면서 참사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정아 순창군의회장, 순창군 노인대학 특강

순창군의회 신정아 의장이 20일 순창군 노인대학에서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순창군의회 의정활동'이라는 주제로 유쾌한 특강을 펼쳤다. 신정아 의장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강의를 어르신들과의 소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 의장은 어르신들, 가족이야기, 결혼생활, 부모님들과의 관계 등 본인의 일대기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풀어내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3년의 경력을 지닌 신정아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초선때 '전통시장 전담문제', 8대 때 '인계 농로리 폐기물공장 악취문제', 그리고 9대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직접 제작해 온 PPT에 어린시절 사진, 결혼 후 사진 등을 보여줘 많은 웃음을 자아냈으며, 의정활동 동영상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카리스마와 열정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많은 어르신들의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순창=이양원기자

고창 농어촌공, ESG 실천문화 확산 '쓰담 쓰담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춘)는 20일 오전 고창 공산저수지에서 저수지, 농업인, 고창군 자율방범대, 수질환경 보전회 위원과 함께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수길 쓰담 쓰담(쓰레기 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쓰담 쓰담 캠페인'은 일반시민·지자체·협약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한 대표 ESG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한 사업소 인근 저수지 및 해안가 등에서 쓰레기를 담으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대내·외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공사 직원을 비롯해 지자체·지역주민 등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공산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임근춘 고창지사는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 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1박2일 '다다다 힐링캠프' 성료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최근 가족끼리 함께 하는 1박2일 '다다다(다다문하다)다다(다다)다(다다)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다다다 힐링캠프 1차 프로그램은 행복플러스 가족교육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이 함께 연계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된 만큼 무주군 내 거주하는 가정이 가족 간 이웃 간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총 13가정(49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하였으며, 1박2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수영장 놀이시간 △에그프를 통한 가족산리코칭 △부모자녀 함께 하는 세족식 △가족사진 퍼즐 등 다양한 과정에 함께 했다. 이번 캠프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아빠, 동생 등 가족 구성원과 많이 친해질 수 있어 좋았으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읍 지사협,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철, 과동원)는 20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기회의 및 복지기동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분기 추진사업 보고 및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시도를 건 특화사업 '복지기동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위원들의 역할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복지기동대는 앞으로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소액 긴급 수리, 주거환경개선, 안전 점검 등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춘향떡 맛집' 선정 브랜드 이미지 개발

남원시는 남원을 대표하는 '남원시 인증 음식집 춘향떡 맛' 집인 새집(대표 서정심) 등 20곳을 선정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춘향떡 맛집 선정은 신형업소를 대상으로 1차 위생환경, 2차 맛, 서비스, 가격, 재방문 의사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향후 지정관 게시 및 조리장 후드 청소, 다각적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남식품 안홍철 회장, 김제시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강남식품 안홍철 회장이 20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화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안 회장은 평소 고향 김제에 대한 애정이 깊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연초에 원주 이사면의 취약계층에 떡국떡을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도 또한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성된 기금을 활용 2024년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안 회장은 "고향 김제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